

이오네스코

대머리 까진 여류성악가

La Cantatrice Chauve



'92.6.8 월 ~ 6.21 일

평일/오후 7:30 토·일요일/오후 5:00, 7:30

부산문화회관소강당

주최/ 부산문화회관

대머리카진 여류 성악가

제 작 • 원형극장
원 작 • 이오네스코
번 역 • 김 정 옥
감 수 • 박 형 섭
연 출 • 김 동 규
기 획 • 조 강 제

■ 스텝 ■

무대감독 • 권 영 준
조명 • 신 상 준
미술 • 김 선 경
조연출 • 권 영 만
기획보 • 진 상 우
진행 • 박 정 대

■ 출연배우 ■

마르땡 • 이 상 복
마르땡부인 • 최 향 운
스미스 • 이 재 용
스미스부인 • 윤 선 희
소방대장 • 신 세 명
메아리 • 정 문 주

'92. 6. 8 ~ 21

평일/오후 7:30

토 · 일요일/오후 5:00, 7:30

부산문화회관 소강당



김 동 규/연출,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대머리 까진 여류성악가」 공연에 부쳐

300석 미만의 소극장이 신고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되자 부산에도 제법 많은 소극장들이 생겨났고 또 부침을 거듭했다.

실제 소극장은 부산에서 연극을 낳아주는 「산실(産室)」로서, 또 부산연극을 지켜주는 「보루(堡壘)」로서의 구실을 다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대부분의 소극장들이 소유극단만의 연습장이요, 공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일주일에 2~3개 작품을 번갈아 상연한다면 관객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해당 소극장의 단골회원들이 타단체의 공연도 볼 수 있어 소극장 활동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공연하는 「대머리 까진 여류성악가」가 계획되었고 그런 취지에서 소극장측과 절충을 해봤으나 6월 이후의 공연계획은 이미 짜여져 있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럴 즈음 문화회관측에서 문화회관 소극장공연을 전제로 주최를 맡아주어서 제작자를 「원형소극장」으로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원형극장」을 재건해야 한다고 생각은 해왔지만 이번의 경우는 전혀 재건을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원형극장」 이름으로 굴릴 바에야 원래의 취지대로 “市民들에게 소외되지 않는, 그래서 진지하고 아늑한 연극풍토를 마련” 하는데 최선을 다 할 생각이다.

「대머리 까진 여류성악가」는 녹탕빌 극장에서 25회 공연후 위세프 극장으로 옮겨 1992년 6월 8일 현재까지 11,211회의 공연횟수를 기록하며 파리에서 공연되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공연을 주최해 주신 오홍석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하여 홍성모 연극협회 지회장님과 이성규 부지회장님 그리고 저와 저희 「원형극장」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어려운 역을 맡아주신 이상복 부지회장님을 비롯한 출연자 모두 그리고 뒷일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강 남 주/시인, 부산수산대교수

「원형극장」의 재생모티브

탄생은 어느 것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재생은 탄생보다 더 큰 의미를 갖기 마련이다. 그것은 신화적이고 초인간적이기 때문이다.

극단 「원형극장」이 10여년만에 부산에서 재생의 幕을 올린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곳에서의 또 하나의 입무식(入巫式)에 해당된다.

평면적 스토리에 집착하지 않고, 실험적이며 다의성(多義性)을 띠고 있는 부조리극 「대머리 까진 여류성악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필자가 언급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연출가 김동규 교수가 재생을 알리면서 들고 나온 이 레파토리는 여러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그는 우선 연극을 취미로서가 아니라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문의 대상으로서 연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직업적 연극인이며 그에게 있어서의 연극은 연구의 현장이며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같은 프로페셔널 근성에 의해서 수행되는 연극이 실험적인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그 결과는 부산 연극을 현재보다 한 단계 끌어 올리려는 의욕과 노력이 병행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그가 난해한 연극을 재생의 모티브로 택한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수궁의 논리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0여년 전 그는 희랍극을 열심히 했고, 브로드웨이의 극들도 했다. 그리고 정통 연극을 대학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실로 이 지역에서 흔하지 않은 전문 연극인임에는 틀림없다.

그가 다시 여기 이곳에서 시작하는 연극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리고 큰 기대를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부산의 연극이 재생의 모티브를 제시하는 것 같이 우리는 「원형극장」의 공연을 가슴 두근거리며 보고자 하는 것이다.



김 동 규/연출,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이 작품을 연출하면서

86년 「민주화 선언」 이후 우리나라 전체는 데모와 시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정치, 경제, 노동, 학계, 종교계 등에서 <논리적인 주장>과 <합법적인 논리>가 난무했으나 <총체적 위기>를 맞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 주장과 논리들은 한갓 「의미없는 소리」에 불과했다.

논리의 공허와 과잉이 하나의 소리의 의미밖에 없다는 작가의 시각은 옳을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현실방영」이란 시각에서 이 작품을 선정했다.

이 작품이 쓰일 당시인 1950년대는 동서냉전이 극에 달했으나 오늘날은 동서해빙과 화해 무드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결렬과 부정」, 「공허와 과잉」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게 없는 느낌이 이 작품을 선정한 큰 이유이다.

특히 이 작품은 스토리가 없다. 논리가 해체되어 음(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연극이다. 때문에 스토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등장인물들은 이때까지의 연극에서 볼 수 없었던 소외된 사람들이지만 선량하고 순수해서 오히려 바보스러운 사람들이고, 종래의 연극에서는 스토리에 종속되었던 장치나 음향이 여기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일관되는 연기는 우리들 일상생활의 단편들이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배우의 감각성과 순발력에 의해 조립되고 있거나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 되고 있을 뿐이다.

「대머리 까진 여류성악가」!

이 얼마나 완벽한 문장인가. 그러나 이 논리적인 말의 실상(實像)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무대에 올려놓고 보니 이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장면 또한 없는 것 같다.

종래의 연극같으면 작품을 분석한 후 목표를 설정하여 배우들을 목표에 도달하도록 했지만 이 작품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출은 물론 특히 배우들은 등대없는 항해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배우의 연기에 리듬과 운동성을 부여했으나 감각성만은 연출이 미칠 수 있는 한계 밖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의미하게 되풀이 되듯 이 연극도 무의미하게 되풀이 되다가 스미스 부부와 마르탱 부부의 언쟁으로 접어들어 드디어는 과잉의 표상이랄 수 있는 마지막 광적인 상태에 이른다.

때에 따라 배우들이 침묵하는 것은 「공허」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고 마지막의 지나친 광란은 「과잉」으로 받아주기 바라며 대화 도중 상대에 의해 무드가 한결같지 않음은 「결렬」과 「부정」으로 받아주기 바랄 뿐이다.

연출 입장에서 이 작품을 구상화하는데는 먼저 대사가 아니고서는 배우에게 연기를 요구할 수 없었음을 밝혀 둔다. 왜냐하면 작품을 분석한 결

과를 가지고 연기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된 대사 위에 감각성과 운동성에 입각한 순발력을 배우에게 첨가해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우들은 어지러운 항해를 오랫동안 계속했던 것이다. 작품은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추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은 내면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감각성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 이외에 배운 소득이 없었을 것이다.

얻은 것은 적었다 할지라도 배우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상쇄하기 바라며 보다 논리적인 작품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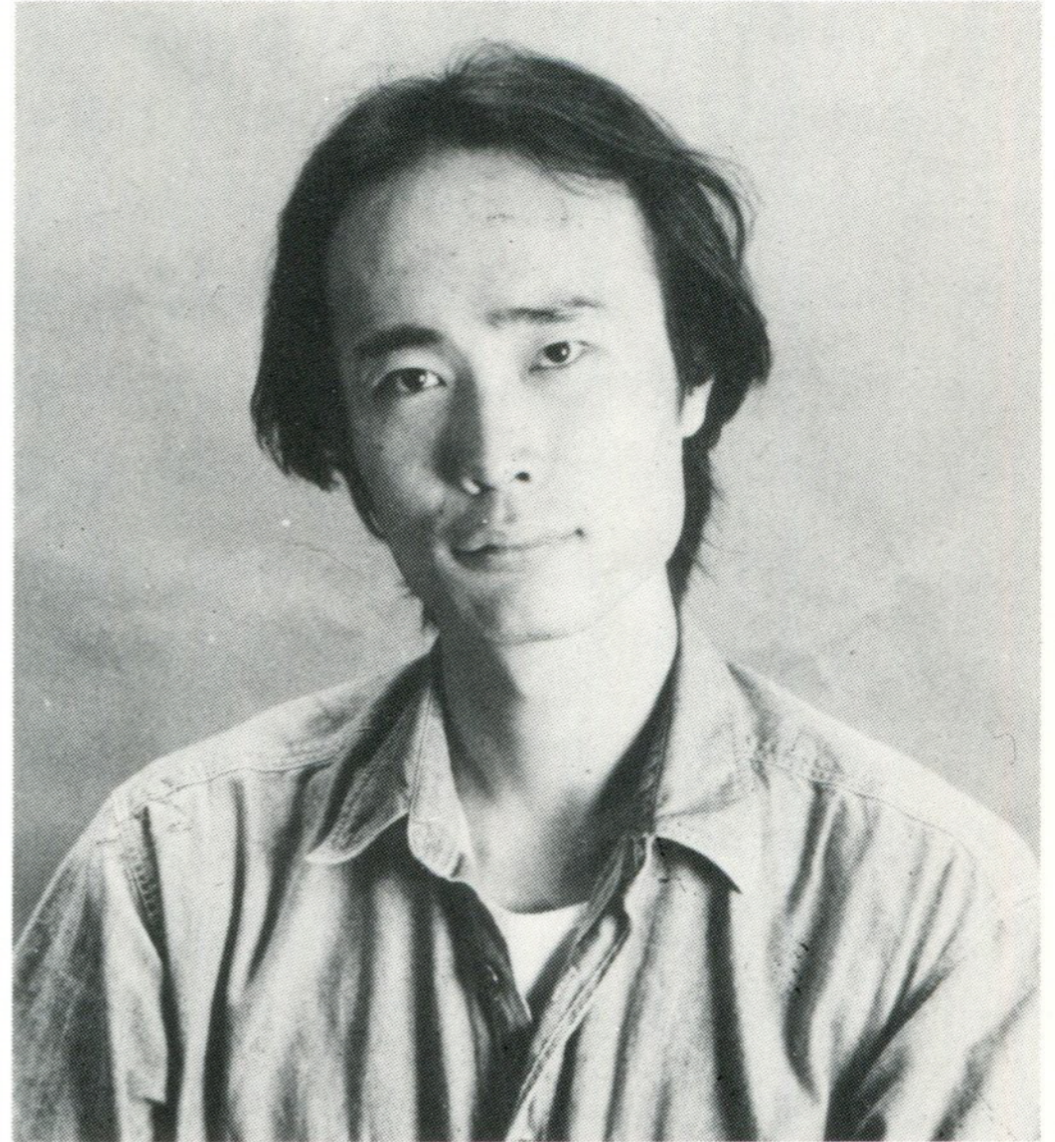


CAST



마르땡/이 상 복

- 극단 부산 레파토리 시스템 단원
- '89부산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스미스/이 재 용

- '92 부산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 연극<달라진 저승>외 20여편 출연



스미스 부인/윤 선 희

- 극단 여명단원
- '90년 부산연극제 여자연기상 수상
- 연극<오끼나와에서 온 편지>외 10여편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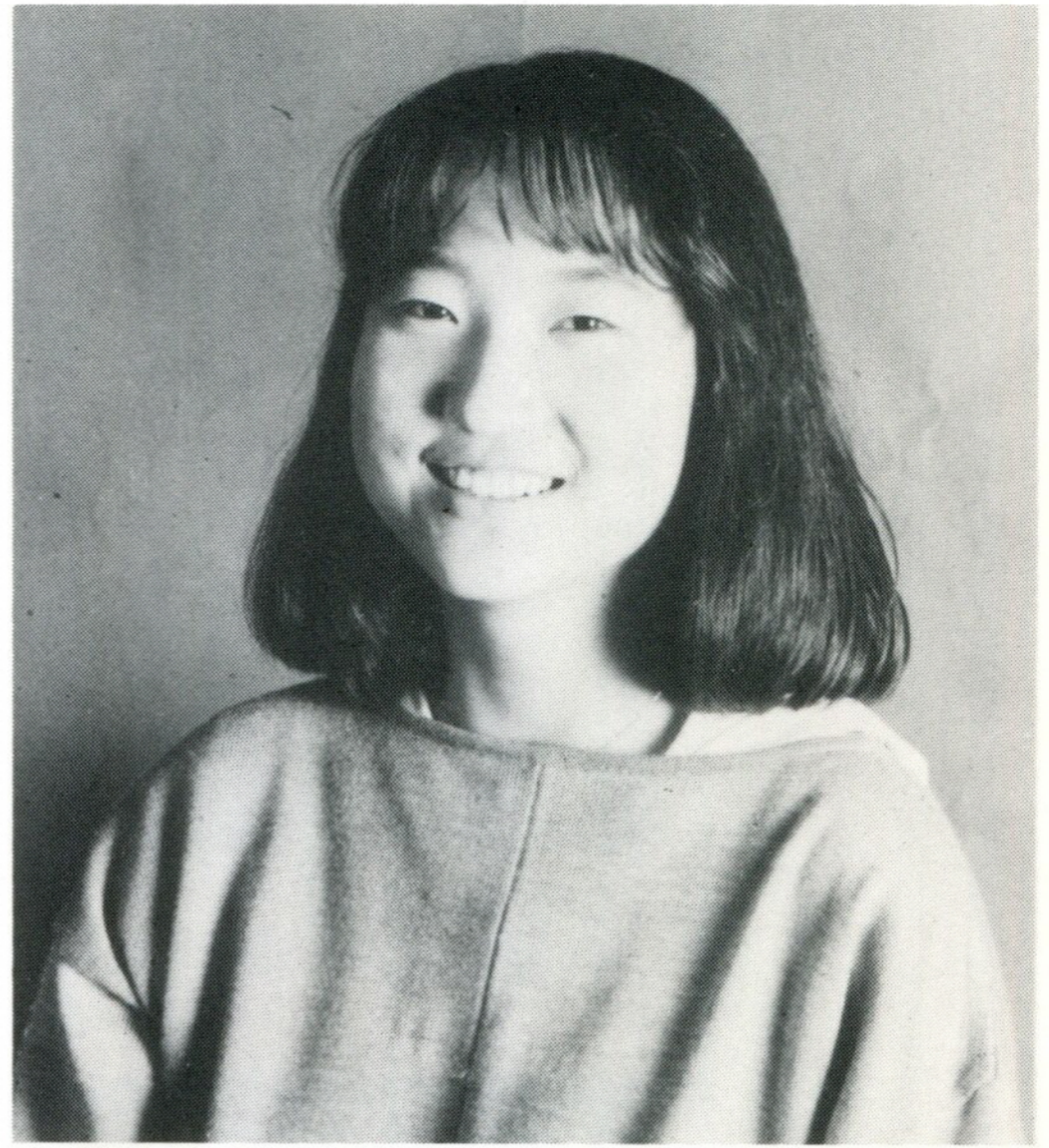
소방대장/신 세 명

- 극단 부산레파토리 시스템 단원



마르땡부인/최 향 운

-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 대학원 재학중
- 연극<엘렉트라>외 다수 출연



메아리/정 문 주

-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4년 재학중
- 연극<헤를드와 모드>외 2편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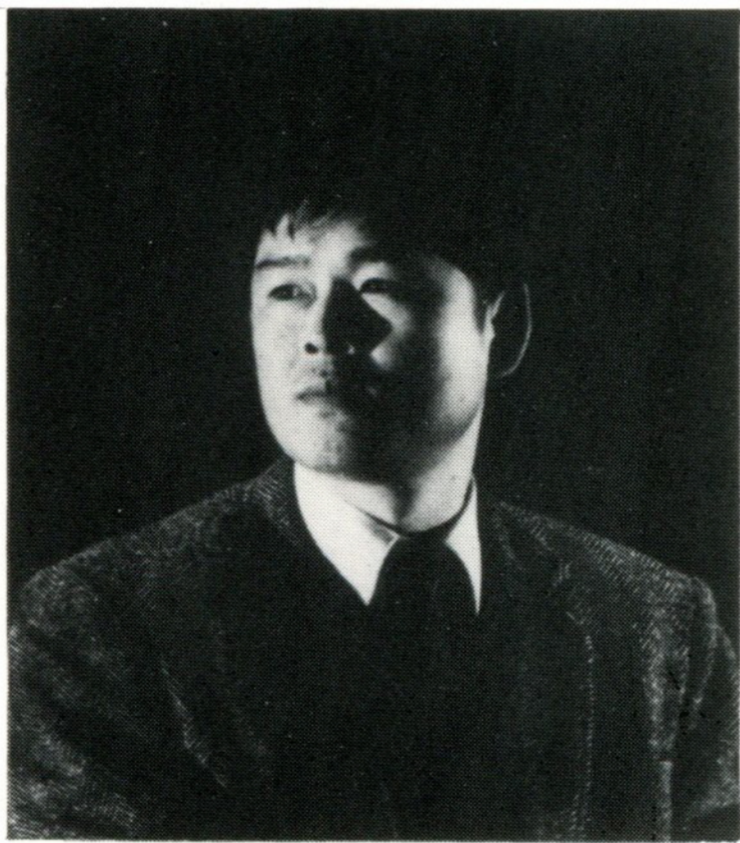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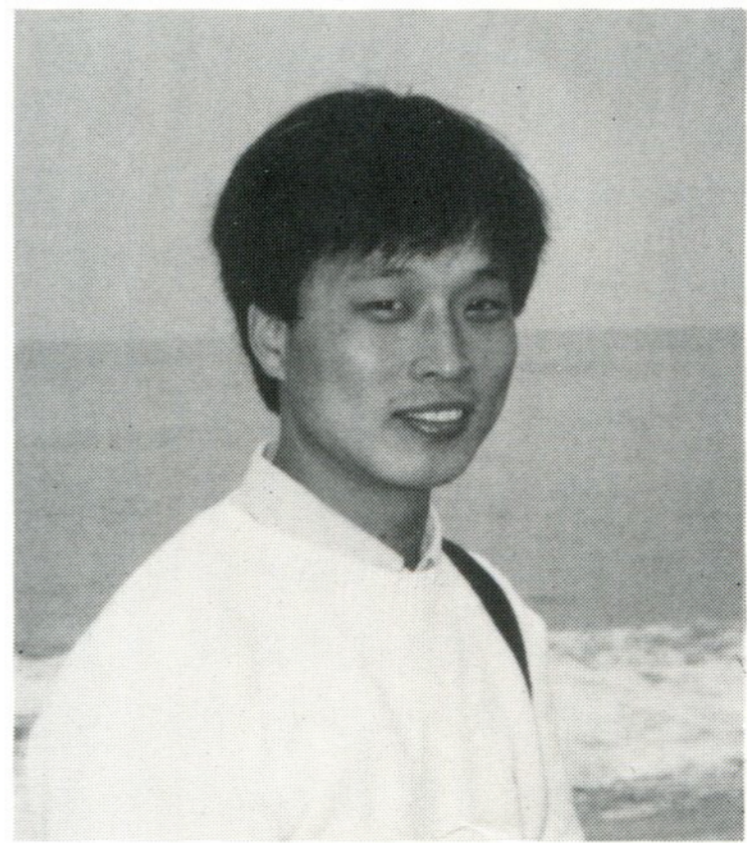
기획 / 조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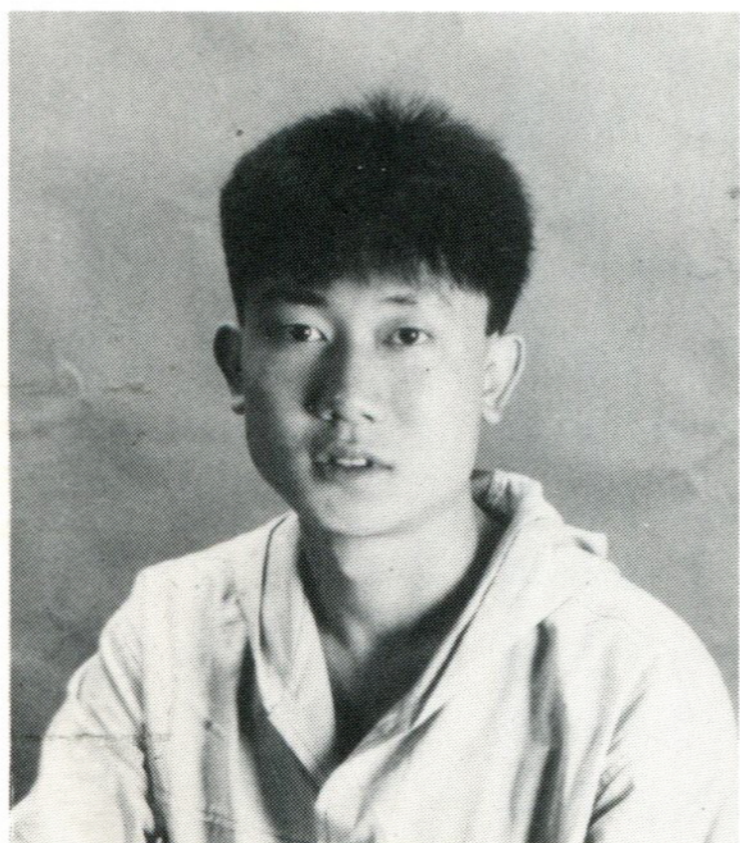
무대감독 / 권영준



조명 / 신상준



조연출 / 권영만



기획보 / 진상우



진행 / 박정대